

여대생의 비만도와 신체만족도에 따른 브래지어와 거들의 착용태도에 관한 연구

이 경 화 · 류 은 정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교수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전공 강사

A Study on the Brassiere and Girdle Attitudes by the Obesity & Body Cathexis of Female College Students

Yi, Kyong-Hwa · Ryou, Eun-Jeong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Instruct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2001. 9. 18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at the obesity and the body cathexis influence on brassiere and girdle attitude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63 female college students using questionnaire. The three body types: slim type (37.6%), standard type (55.6%) and obese type (6.8%) were categorized by the obesity.

The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whole body was segmented as 5 parts: leg and hip girths, abdominal & upper arm girth, face & neck, limbs length & stature and breast. The brassiere & girdle attitudes were identified as 4 factors: "avoidance of wearing", "beauty pursuit", "body-making pursuit" and "brand preference".
2. While the body cathexis and appearance interests of the slim type showed highly, those of the obese type showed lowly.
3. While the obesity and appearance interests influenced the brassiere & girdle attitudes excepting "body-making pursuit", the body cathexis partially influenced them.

This study will provide feasible marketing data and implications for activation of foundation garment industries.

Key words : obesity, body cathexis, appearance interests, brassiere, girdle

비만도, 신체만족도, 외모관심도, 브래지어, 거들

I. 서론

현대 사회에서 신체적 외모는 자기를 표현하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이상적 신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상적 신체상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며 형성되어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오늘날 이상적인 신체 모습은 젊고, 날씬한 서구화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이상은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매스 미디어를 통해 강력하게 전달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적 신체와 아름다움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내면화하여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회의 이상적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와의 차이를 크게 인지하는 경우에는 신체에 대한 불만족한 태도를 형성하고 부정적 자아개념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과 여대생들은 신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마르고 슬림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체 부위에 따라서는 만족도를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남윤자, 이승희 2001).

의복은 신체적 자아의 연장이며 체형상의 결점을 감춰주기 때문에, 개인은 이상적인 신체모습과 자신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복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키도록 동기화된다(Kaiser 1990). 의복은 이와 같이 자아실현을 위한 도구적 기능은 물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상징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과의 관련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신체만족도가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브래지어와 거들 같은 화운데이션의 착용태도와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이상적 신체상에 따라 균형 잡힌 체형과 아름다운 프로포션을 만들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피트니스가 강조되는 의복 스타일이 유행함에 따라 보정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화운데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운데이션은 단순한 피부 위생 또는 체형의 보정효과만이 아닌 신개념의 패션성과 바디메이킹 역할이 요구되

고 있다(손희순,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비만 정도와 신체 부위별 만족도에 따른 브래지어와 거들에 대한 착용태도를 분석함으로써, 여대생들의 신체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보다 기능성이 우수한 화운데이션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마케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비만도와 신체만족도

신체비만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실제로 측정해야 하지만 임상에서는 간편한 방법으로 체격지수를 이용한다. 신체충실지수(Röhrer Index)는 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몸의 영양상태를 허약, 정상, 비만으로 구분하는 지수로서, 신체의 비만정도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하여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체격지수이다. 일반적으로 신체충실지수 120 미만을 허약 체형, 120~150 미만을 정상 체형, 150 이상을 비만 체형으로 구분하며, 그 수치가 클수록 비만함을 의미한다.

공업진흥청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1992)에 의하면, 우리나라 18~24세 여성의 평균 신체충실지수는 131.6으로 나타났다. 박우미(1993)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여대생의 평균 신체충실지수가 122로 나타나 대부분 마른 체형에 가까웠으며, 40~50대 중년 여성들은 평균 142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비만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만족도(Body Cathexis)는 신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의한 만족, 불만족을 말한다(Horn & Gurel, 1982). Secord와 Jourard(1953)에 의해 신체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된 이래 여러 분야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신체만족도는 개인의 자기이미지나 자기존중감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Ford & Drake, 1982; Kaiser 1990).

우리 나라 여대생이나 10~20대 여성들은 매우

마른 체형을 이상형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대부분 불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 부위 중에서 하체부위에 대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우미, 1993; 이연희, 1996; 전경숙, 2001; 남윤자, 이승희 2001). 또한 신체만족도와 인지체형과의 상관관계가 실제체형과의 상관보다 높게 나타나 신체만족도는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주관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더욱 영향을 받고 있었다(남윤자 등, 2001)

오늘날 서구적이고 마른 체형을 이상적으로 인식하는 풍토는 비만이 아닌 정상 체중인들의 신체만족도조차 낮추고 있으며, 심한 경우 실제의 체형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무모한 체중조절을 시도하게 하며,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극도로 줄임으로써 영양부족은 물론 정신 건강까지 해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의복은 신체적 자아의 연장으로서 신체의 결점을 보완하고 이상적인 신체상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됨으로써 긍정적 신체이미지를 형성시키고 신체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의미있는 일이다.

2. 브래지어와 거들 착용행동

화운데이션은 체형의 결점을 보완하여 몸의 균형을 이루어주며, 걸옷의 실루엣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정용 기초 의류이다(김정은, 1992). 최근 마른 몸매에 대한 선호와 아름다운 프로포션을 만들고자 하는 여성들의 욕구가 강해지고, 피트니스가 강조되는 의복 스타일이 유행함에 따라 보정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화운데이션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대생들은 외모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연령층으로 브래지어와 거들같은 화운데이션에 대한 관심과 착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이다. 여대생의 브래지어 착용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1학년에서 4학년으로 갈수록 신체충실지수의 평균치가 낮아지고 표준편차도 작아 비교적 마른 체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브래지어의 소

유매수도 저학년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학년의 증가에 따라 기본형 브래지어에 비해 보정형 및 기능형 브래지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브래지어 치수를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손희순, 1991; 이경화, 1996).

체형별로 볼 때, 보통체형이 비만이나 마른체형에 비해 자신이 착용하는 브래지어 치수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전체 집단에서 브래지어를 습관적으로 지속해서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른 체형이나 보통체형에 비해 비만 체형의 경우 와이어가 삽입된 브래지어를 선호하며, 브래지어 선택시 치수와 기능성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지어의 착용동기에 있어서 마른 체형은 '유방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였으며, 비만체형의 경우는 '유방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하는 치수의 브래지어 구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들의 착용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대생들의 거들 착용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생리 기간이나 체형이 드러나는 걸옷을 착용할 때만 주로 착용한다고 하였다. 체형별로 살펴보면, 마른 체형이나 보통 체형에 비해 비만체형의 거들 착용율이 높았으며, 착용하는 거들의 유형도 배를 눌러주거나 힙업 등 특정 부위의 보정력이 우수한 하드 타입의 거들 타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만체형은 원하는 치수 구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보통 체형이 아닌 마른 체형과 비만 체형의 거들 착용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영숙, 1987; 손희순, 김영숙, 1998; 이경화, 1999).

이와 같이 비만도가 높을수록 브래지어나 거들같은 화운데이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착용 확률이 높지만, 만족도는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능성과 착용감이 보다 우수하고 착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화운데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비만도와 신체만족도에 따른 브래지어와 거들의 착용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비만도와 신체만족도가 브래지어와 거들의 착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으며, 부가적으로 외모관심도의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 1) 비만도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도의 차이를 밝힌다.
- 2) 비만도 및 신체만족도, 외모관심도가 브래지어와 거들의 착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다.
- 3) 비만도에 따른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를 밝힌다.

2. 측정도구

1) 비만도에 의한 체형분류

비만도에 의한 체형 분류의 방법에는 키와 몸무게로 계산되는 신체충실지수(Röhrer Index)가 대표적이다. 남윤자와 이승희(2001)의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 여대생의 경우 신체계측치간의 상관은 키와 몸무게의 신체크기인식과의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leq .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크기의 주관적 인식에 의한 비만도와 만족도가 브래지어와 거들의 착용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연구 대상자들이 직접 기술한 키와 몸무게 값을 이용하여 신체충실지수(Röhrer Index)를 산출하였다. 신체충실지수를 구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Röhrer Index

$$(\text{신체충실지수}) = \frac{\text{체중}}{\text{신장}^3} \times 10^7$$

일반적으로 신체충실지수 120 이하는 마른 체형, 121~150 미만은 보통 체형, 150 이상은 비만체형으로 구분되어, 그 수치가 클수록 비만함을 의미한다.

2) 신체만족도

신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두부(머리, 얼굴), 경부(목의 굵기와 길이), 흉부(가슴둘레와 가슴처짐 정도), 복부(허리굵기와 길이, 배 돌출정도), 둔부(엉덩이 둘레와 처짐정도), 상지(팔의 굵기와 길이), 하지(허벅지, 종아리, 발목의 굵기, 다리길이) 등의 각 부위별 항목에 대해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외 키, 몸무게, 전신 체형 대한 만족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외모관심도

외모관심도는 예비조사를 통해 외모에 관심이 있는지, 외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외모에 대해 평가하는 것에 관심 있는지를 묻는 5개의 문항을 선정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4) 브래지어와 거들의 착용태도

화운데이션 중에서 가장 많이 착용되는 브래지어와 거들의 착용태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유 기술식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총 18문항의 브래지어와 거들의 착용태도 척도를 개발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5) 인구통계적 특성

인구통계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학년, 가정총수입, 의복비 지출정도를 측정하였다. 의복비 지출은 최근 3개월간 지출한 의복비를 10만원 단위로 구성된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의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여대생들을 편의 표본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의 분포는 1학년이 27.2%, 2학년이 13.4%, 3학년이 29.9%, 4학년이 28.7%로 나타났으며, 가정의 총월수입은 200만원 미만이 20.9%, 200만원~400만원 미만이 52.9%, 400만원~600만원 미만이 14.1%, 600만원 이상이 8.9%로 나타났다. 의복비 지출은 10만원 미만이 18.7%, 10만원대가 36.9%,

20만원대가 19.8%, 30만원대가 12.3%, 40만원대 이상이 11.5%로 나타났다. 2001년 8월에 총 3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그 중에서 응답이 성실한 263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중다회귀분석, 분산분석 및 사후검정을 위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1. 비만도에 의한 집단 분류

비만도에 따라 체형 집단을 분류하기 위하여 체중과 신장에 의한 신체충실지수(Röhrer Index)를 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120 이하를 마른 체형, 120.001이상 150미만을 보통체형, 150이상을 비만 체형으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마른 체형은 전체 연구자의 37.6%, 보통 체형은 55.6%, 비만 체형은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평균 신체충실지수는 125.22로 보통 체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만 체중의 비율이 매우 적게 나타난 것은 여대생들이 마르고, 여원 체형을 선호하며, 비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 1> 비만도에 의한 집단 분류

변인	집단	마른 체형	보통 체형	비만 체형	계
빈도(%)		99(37.6)	146(55.6)	18(6.8)	263(100.0)
평균 Röhrer지수		112.89	129.97	154.44	125.22

2. 신체만족도 및 브래지어와 거들의 착용태도의 유형

1) 신체만족도 측정변인

신체 부위의 분류는 피복구성학의 체형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신체만족도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신체부위는 이론적 분류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신체만족도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61.03%로 나타났다. 요인 1은 허벅지, 종아리, 발목 굵기와 엉덩이 둘레 등의 하반신을 구성하는 항목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하지굵기와 엉덩이'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허리굵기와 길이, 배둘레정도, 팔굻기 항목으로 구성되어 '복부형태 및 팔굻기'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목길기와 굵기, 얼굴 항목으로 구성되어 '안면 및 경부 형태'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4는 다리와 팔길이, 키 항목으로 구성되어 '사지길이 및 키'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가슴 둘레와 가슴 처짐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가슴 형태'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에서 연구대상자들은 하반신, 복부, 얼굴, 키, 가슴 등의 부위에 따라 만족도를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분류는 황진숙(1997)과 Shim 등(1991)의 연구에서 하반신(lower body), 머리/상반신(head/upper body), 높이(height), 무게(weight), 토르소(torso)의 5부위로 분류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 브래지어와 거들 착용태도

브래지어와 거들 착용태도의 유형을 밝히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총 설명력은 57.28%로

나타났다. 요인 1은 건강을 위해서 또는 답답해서 거들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 "체형을 보정하기 위해 조금 답답하더라도 참는다"와 "배를 많이 눌러주는 거들이 좋다"는 요인 부하량이 "-" 값을 나타내 모두 착용을 회피하는 문항으로 사료되어 '착용 회피' 태도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화려하고 "예쁜 속옷이나 섹시해 보이는 브래지어와 거들을 구입한다"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심미성 추구'로 명명하였으며, 요인 3은 가슴

<표 2> 신체만족도 측정변인

요인	문항	요인부하량	고유치 누적변량
하지굽기 및 엉덩이	· 종아리 굽기	.810	4.374 14.413
	· 발목굽기	.757	
	· 허벅지굽기	.694	
	· 엉덩이둘레	.512	
복부 및 팔굽기	· 허리굽기	.746	1.806 28.808
	· 배둘출정도	.743	
	· 팔굽기	.580	
	· 허리길이	.503	
안면 및 경부	· 목길이	.832	1.397 40.985
	· 목굽기	.775	
	· 얼굴	.477	
사지길이 및 키	· 다리길이	.736	1.145 52.690
	· 키	.735	
	· 팔길이	.529	
가슴형태	· 가슴둘레	.741	1.044 61.033
	· 가슴처점정도	.689	

이나 험이 처지지 않고 또한 몸매를 정리하기 위해 항상 착용한다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신체보정 추구'로 명명하였다. 요인 4는 고가의 브래지어와 거들 제품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유명제품 선호'로 명명하였다.

3. 비만도에 따른 신체만족도, 외모관심도

비만도에 따른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표 3> 브래지어와 거들의 착용태도

요인	문항	요인 부하량	고유치 누적변량
착용 회피	· 조이는 것은 피부에 자극을 주니까 입지 않는다	.840	4.554 19.648
	· 거들은 촉감이 나쁘고 거추장스러워 입지 않는다	.751	
	· 거들은 건강에 나쁘니까 입지 않는다	.732	
	· 거들은 덥고 답답해서 입지 않는다	.709	
	· 체형을 보정하기 위해 조금 답답하더라도 참는다	-.602	
	· 배를 많이 눌러주는 거들이 좋다	-.517	
심미성 추구	· 화려하고 예쁜 속옷을 입으면 기분이 좋다	.775	2.047 34.518
	· 가격이 비싸도 새로 나온 화운데이션을 사고 싶다	.737	
	· 섹시해보이는 화운데이션을 구입한다	.727	
	·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가가 중요하다	.507	
신체보정 추구	· 겉옷에 따라 속옷을 잘 갖추어 입는 편이다	.459	1.378 48.128
	· 가슴이나 험이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꼭 입는다	.776	
	· 거들을 입지 않으면 차림새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 아 신경쓰인다	.719	
유명제품선호	· 몸매를 정리하기 위해 항상 입는다	.576	1.185 57.276
	· 가격이싼 것도 기능이나 디자인에는 고가 제품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840	
	· 유명제품의 화운데이션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	.756	

비만도에 따른 신체만족도에는 모든 부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비만도가 클수록 모든 신체부위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 특히 전신 체형, 복부 형태와 팔굽기, 엉덩이와 하지 굽기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비만도에 따른 유의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대생들은 비만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박우미(1993), 이연희(1996)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비만도에 따른 체형별로 살펴보면, 마른 체형은 사지길이와 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복부 형태와 팔굽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통체형은 전신 체형과 엉덩이, 하지굽기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안면 및 경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비만체형은 몸무게와 전신체형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았으며, 그에 비해 안면 및 경부형태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김양진(1992), 이연희(1996), 남윤자, 이승희(2001)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은 다리와 엉덩이, 아래배 등의 하체부위와 관련된 항목에서 가장 불만족한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비만도에 따른 외모관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와 Duncan's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비만도에 따라 외모관심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마른 체형이 비만체형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비만도, 신체만족도, 외모관심도가 브래지어와 거들 착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브래지어와 거들 착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브래지어와 거들의 착용 회피에는 비만도($\beta = -.130$)와 외모관심도($\beta = -.145$)가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비만도가 낮을수록 또한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브래지어와 거들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미성 추구' 태도에는 전신체형에 대한 만족도($\beta = .147$)와 외모관심도($\beta = .215$)가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신체형에 대한 만족도와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화려하고, 색시하면서 유행하는 속옷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브래지어와 거들은 신체 보정이 주기능이지만 소비자가 선호하는 감각의 디자인 개발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명제품 선호'에는 안면·경부 만족도($\beta = .123$), 가슴형태 만족도($\beta = -.185$), 외모관심도($\beta = .171$)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면과 경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또한 외모에 관심이 많을수록 유명 브래지어와 전체 제품을 선호하였으나, 가슴형태의 만족도는 부적 영향을 미쳐 여대생들은 자신의 가슴형태에 만족하지 않을수록 유명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비만도에 따른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도의 차이

변인	체형	마른체형	보통체형	비만체형	F값
부분체형	엉덩이·하지굽기	2.86 A	2.33 B	1.99 C	22.58***
	복부형태·팔굽기	3.03 A	2.49 B	1.86 C	40.38***
	안면·경부형태	3.00 A	3.04 B	3.34 B	7.57***
	사지길이·키	2.20 A	2.69 A	2.94 B	8.39***
	가슴형태	2.65 A	2.33 B	2.19 B	5.72**
전신 체형		3.02 A	2.30 B	1.58 C	45.76***
키		2.67 A	2.58 A	2.06 B	7.91***
몸무게		2.98 A	2.38 A	1.50 B	2.45**
외모관심도		3.10 A	3.00 AB	2.92 B	3.66*

이상의 결과에서 브래지어와 거들 착용태도에는 비만도 보다는 자신의 체형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신체만족도가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모관심이 브래지어와 거들 착용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앞의 결과에서 다른 체형일수록 외모관심도와 신체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다른 체형의 여대생들은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지나친 신체보정용의 답답한 느낌을 주는 하드 타입의 화운데이션보다는 화려한 디자인의 감각적인 화운데이션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본 연구는 여대생의 비만도와 신체만족도 및 외모관심도에 따른 브래지어와 전체 착용태도를 분석하여, 체형에 따른 브래지어와 거들같은 화운데이션의 디자인 개발과 상품기획 전략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신체총실지수에 의해 여대생의 체형을 분류한 결과, 마른 체형이 37.6%, 보통 체형은 55.6%, 비만 체형은 6.8%를 차지하여, 비만 체중이 극히 적은

<표 5> 브래지어와 전체 의류태도에 대한 영향 요인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t	F	R2
착용 회피	비만도	-.712	-.130	-2.114*	4.985**	.136
	외모관심	-1.178	-.145	-2.356*		
심미성추구	전신체형만족	.123	.147	2.631**	14.427**	.278
	외모관심	.438	.215	3.640***		
유명제품 선호	안면,경부만족	.134	.123	1.984*	7.122**	.166
	가슴형태만족	-.182	-.185	-2.975**		
	외모관심	.198	.171	2.822**		

<표 6> 비만도에 따른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

변인	집단	마른체형	보통체형	비만체형	F값
학년		2.778	2.556	2.517	1.507
가정총수입		4.196 A	3.553 B	4.056 A	2.962*
의복비 지출		4.030 AB	3.828 B	4.278 A	4.698**

5. 비만도에 따른 인구통계적 특성

비만도에 따른 체형별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NOVA와 Duncan's multiple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가정 총수입과 의복비 지출에 대해서만 체형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른체형과 비만체형이 보통 체형에 비해 가정총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복비 지출은 비만 체형이 보통체형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마르고 여원 체형을 선호하고 비만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2. 여대생들이 신체만족도와 관련하여 인지하는 신체부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총 5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은 '하지굵기와 엉덩이', 요인 2는 '복부형태 및 팔굼기', 요인 3은 '안면 및 경부 형태', 요인 4는 '사지길이 및 키', 요인 5는 '가슴형태' 요인으로 분류되어, 연구대상자들은 대체로 신체를 크게 하반신, 복부, 얼굴, 키, 흉부 등의 부위별로 인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브래지어와 거들 착용태도의 유형은 '착용 회피', '심미성 추구', '신체보정 추구', '유명제품 선호'태도

등으로 분류되었다.

3. 비만도에 따른 신체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비만도에 따른 체형과 상관없이 신체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낮았으며, 비만도가 클수록 모든 부위의 신체만족도는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체형은 특히 전신 체형, 복부 형태와 팔굽기, 엉덩이와 하지 굽기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주로 하반신 부위와 둘째항목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른 체형은 키와 관련한 길이항목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면 및 경부형태에 대한 만족도는 모든 체형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도에 따른 외모관심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마른 체형이 비만 체형에 비해 자신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비만도 및 신체만족도와 외모관심도가 브래지어와 거들 착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마른 체형일수록, 외모관심도가 적을수록 브래지어와 거들의 착용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신체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화려하고, 섹시하면서 유행하는 속옷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대생들은 화운데이션에 대한 심미성 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안면과 경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외모관심도가 높을수록 또한 자신의 가슴형태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고가의 유명 화운데이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브래지어와 거들 착용태도에는 신체충실지수에 의한 비만도보다는 자신의 체형과 신체크기를 주관적으로 인지하여 평가한 신체만족도가 보다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른 체형일수록 외모관심도와 신체만족도가 높으며, 지나친 신체보정을 위해 촉감이 나쁘거나 답답한 브래지어와 거들보다는 디자인이나 촉감 등 심미적, 감성적 측면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른 체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대생을 표적으로 하는 화운데이션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과 취향에 대한 고려를 중시해야 하며, 제품 광고시에도 기능성의 강조보다는 감성적 측면의 소구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크기와 체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중시하였기 때문에 키와 체중의 실제 계측치가 아닌 설문 조사의 자료를 사용해 비만도를 산출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계측법을 병용하여 주관적 신체인식과 실제 체형과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체만족도에 따른 화운데이션의 디자인 선호도 및 제품속성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제품개발을 위해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정은(1992). 시판 화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불만족요인 연구-브래지어와 거들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희(2000). 고기능성 파운데이션 의류의 착용 효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윤자·이승희(2001). 한·미 여대생의 실제 체형과 인지 체형의 만족도에 관한 비교. 한국의류학회지. 25(4), pp.764~772
- 박우미(1993). 우리나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식구조. 대한가정학회지. 31(1), pp.163~180.
- 손희순(1991). 브래지어 및 거들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논문집.
- 손희순·김영숙(1998). 성인여성의 화운데이션 제품에 대한 인식과 착용에 관한 연구. 한국 패션비즈니스학회. 2(3), pp.101~
- 안영숙(1987). 화운데이션의 착용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화(1996). 화운데이션 의류의 착용실태에 관한 연구(I). 원대논문집 제 31집. pp. 1445~1475.
- 이경화(1999). 여대생의 Girdle 착용실태. 생활과학연구논집 19(1). pp. 5~23.
- 이연희(1996). 유행선도력과 의복 및 신체만족도와의 상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명(199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와 신체 이미지가 의복추구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표준과학연구원(1992). 산업제품의 표준치 설정을 위한 국민 표준 체위조사 보고서.
- 황진숙(1998). 신체만족도와 이상적인 신체상의 중요성이 의복추구태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3), pp.293~302
- Kaiser, S.(1990).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N.Y.:Macmillan.
- Horn, M. J. & Gurel, L. M.(1981). The second skin(3rd). Boston, MA: Houghton Mifflin.
- Ford, I. M. & Drake, M. F.(1982). Attitudes toward clothing body and self: A comparison of two group,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1(2).
- Secord, P., & Jourard, S.(1953). The Appraisal Body Cathexis: Body cathexis and the ideal female figure.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50, 243-247.
- Shim, S. & Kotsiopoulos, A. & Knoll, D.S.(1991). Body cathexis, clothing attitude and their relations to clothing and shopping behavior among male consumers. Clothing and Textile Research Journal, 9(3), 35-44.